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4.509>

JCCT 2024-7-59

## 하이브리드 집합체로서의 인간존재: 교차의 가능성과 한계

### Human Existence as a Hybrid Assemblage: the Possibilities and Limits of Intersectionality

손향구\*

Shon, HyangKoo\*

**요약** 우리는 신유물론을 배경으로 공각기동대, 뉴럴링크, 유전자 혼종인 카밀, 삼체인 등의 SF 주인공을 참조하여, 자기생성체계와 공-산 체계 사이의 교차적 연결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 존재에 대해 새롭게 성찰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래디컬한 공-산 체계에서는 개체와 경계를 해체하고 혼종적 연결과 융합만으로 존재를 정의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 둘째, 이들이 개체수준의 자율적 사고능력을 외면함으로써, 혼종적 공-산이 야기할 파괴적 성격을 제대로 규명하거나 이에 따른 실질적 대응책을 모색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셋째, 이질적 연결에 의해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될 상황이라면 혼종적 공-산의 연결망보다는 자기생성적 체계의 자율적 구성원이라는 정체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나아가 자기준거적인 조절을 안정시키기 위한 개체단위의 역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 존재자간 교차를 통해 반복되는 혼종적 연결을 기술(description)하는데에만 치우친다면 제대로 된 실천적 비전을 제시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존재자간 파괴적 상호작용에 대한 상상을 촉발하는 다양한 SF를 활용하여 인류중의 정체성을 새로운 관점에서 정의하고, 나아가 일정한 수준의 경계긋기와 이에 기초한 공생적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자기생성 기제를 탐색하고 자기준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으로 촉구함으로써 신유물론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신유물론, 교차, 집합체, 공-산, 자기생성

**Abstract** We rethink human existence as a assemblage through intersectionality by comparing autopoiesis and sympoiesis systems with reference to science fiction protagonists such as Ghost in the Shell, Neuralink, Camille, a genetic hybrid, and San Ti against the background of neo-materialism. Our findings reveal that, first, radical sympoiesis is characterized by the dissolution of individuals and boundaries, and attempt to explain existence solely through heterogeneous linkage and fusion; second, by ignoring the capacity for autonomous thinking at the individual level, they are unable to fully recognize the destructive nature of hybrid co-production or to develop practical responses to it. Third, we suggest that if the very survival of humanity is threatened by heterogeneous linkage,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our identity as autonomous members of a autopoietic system rather than to heterogeneous sympoietic networks and we should also pay attention to the role of individual units in stabilizing self-regulation. Through this study, we aimed to contribute to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neo-materialism by arguing that it is likely to fail to provide an adequate practical vision if it is limited to describing the hybrid connections that recur through the intersection of beings, and by urging us to define the identity of the human species from a new perspective by utilizing various SF stories that trigger the imagination of destructive interactions between beings, and to explore the autopoiesis in terms of symbiotic interactions based on a certain level of boundary and self-regulation.

**Key words** : Neo-materialism, Intersection, Assemblage, Sympoiesis, Autopoiesis

\*정회원,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초빙교수 (단독저자)  
접수일: 2024년 5월 16일, 수정완료일: 2024년 6월 8일  
게재확정일: 2024년 6월 17일

Received: May 16, 2024 / Revised: June 8, 2024

Accepted: June 17, 2024

\*Corresponding Author: hkshon97@hanmail.net

Dept. of Darma, Dongguk University, South Korea

## I. 서론

최근 들어 신유물론적 관점에서 인간 존재론을 논의하는 흐름이 활발해졌다. 신유물론에는 단일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물질에도 힘, 역량, 능력이 있고 이들이 이러한 능력과 역량을 능동적으로 발휘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사조를 통칭한다. 신유물론자들이 말하는 능동적 역량이란 물질 간 경계를 횡단하며 새로운 집합체를 지속적으로 생성하고 변화를 추동하는 힘과 같은 것이다. 경계를 횡단하는 것의 특징은 하나의 범주로 설명될 수 없고 독립된 다른 범주로 분석될 수도 없는 것이며, 교차를 통한 공동 구성을 통해서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 또한, 공동으로 구성된 집합체들은 요소들 사이에 맺은 모든 관계의 집합에 지나지 않으며 더 광범위한 연결망 속에서 교차하며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그 속성이 재규정되고 분화되는 것으로 설명된다[1]. 이들에게는 인간 또한 생물·무생물 행위 요소들이 공동 구성한 집합적 연결망의 일원이라는 관점에서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 존재이다[2].

신유물론적 존재론은 인간·비인간 사이의 연결에 대해 새로운 관점과 풍부한 설명을 제공하고, 나아가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것인지, 다른 존재자들과 어떻게 교차하는지, 특히 디지털과 생명공학 등 능동적 역량이 매우 큰 인공물과의 교차와 횡단이 어떤 식으로 감행되고 그 교차의 궤적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에 대해 의미 있는 관심을 촉발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 개체는 그것이 다른 개체들과 맺은 모든 관계의 집합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바라보는 관계적 존재론에서 정의하는 인간의 지위에 대해 살펴보고, 디지털 하이브리드와 생태위기 시대에 이러한 사유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실천적 함의를 온건한 입장과 래티컬한 입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II. 교차, 되기, 연결의 존재론

신유물론 관점의 관계적 존재론은 실체, 본질, 동일, 이성을 강조하는 플라톤류의 형이상학이나 모든 문화에 공통된 질서가 존재한다는 구조주의에 반대한다. 또한, 물질 간 상호작용은 외부에서 힘과 에너지가 주어질 때에만 수동적으로 시작된다고 보는 전통적 유물론에도 반대한다. 대신 교차(횡단성), 연결, 수평적 존재,

집합체, 창발 등의 개념을 강조한다[3].

신유물론에서 말하는 교차적 횡단이란 동물-되기, 지구-되기, 기계-되기를 통해 타자들과의 관계 흐름 안에서 유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되기(becoming)’란 ‘자기동일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다른 것이 되는 것’으로 타성에 젖은 정체성을 탈피하고 새로운 배치 안에서 신체를 탈바꿈하는 방식을 일컫는다[4]. 특히 자본주의를 통해 계속해서 생성되는 디지털과 유전공학과 같은 기술적 존재들은 이러한 ‘되기’에서 사물들의 새로운 관계망을 촉발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5].

또한 교차적 횡단에 참여하는 요소들의 관계는 수평적이어서, 새롭게 생성된 차이들에 층위적 서열은 존재하지 않고, 중심과 주변의 구분도 없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적이며, 각각의 영향력이 수평적이기 때문에 일견 사소해 보이는 행위자에도 그 사건에 개입된 행위자 모두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힘과 영향력이 존재한다는 점에도 관심을 가진다[6].

한편, 특정한 연결망을 형성하는 인간·비인간 행위자 또는 생물·무생물 행위자들에겐 에너지와 감응의 정도에 따라 때로는 점진적으로, 때로는 도약의 형태로 연결망을 파열하는 방식의 이합집산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렇게 구성된 집합체들은 교차적 횡단을 통한 새로운 배치를 통해 계속해서 변화하는 일시적 집합체이므로 고정된 점이 아니라 창조와 생성이라는 동적 과정에 의해 규정되며, 이 과정은 비선형 인과적이고 우연적이고 창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한다[7, 8]. 아래의 <신유물론의 공리들>에서 보이듯이 이러한 신유물론의 핵심 개념은 변화, 우발성, 행위성, 본질의 부정, 집합적 다양체 등으로 수렴된다[9].

### 신유물론(관계적 존재론)의 공리들

-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 모든 것은 뚜렷한 경계와 단절지점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연속적인 구배를 따라 발생한다.
- 모든 것은 우발적이다
- 우리는 실체·명사라기보다는 오히려 행위·동사에 집중해야한다.
- 사물은 ‘실천’속에서 생성되기때문에 본질이 전혀 없다.
- 사물의 행위가 사물의 무엇임보다 더 흥미롭다.
- 사유와 세계는 결코 별개로 존재하지 않기에 상호작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내부작용을 한다.
- 인간과 사물은 단일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집합적 다양체다

이러한 신유물론이 인류사회에 시사하는 실천적 함의를 탐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이를 위해 다음의 방법론에 따라 논의를 전개하였다.

첫째,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인간·비인간 또는 생물·무생물 간 교차와 연결 스펙트럼을 자기생성(autopoiesis)과 공-산(sympoiesis) 개념의 비교를 통해 정리하고 둘째, 그 교차라는 것이 경계와 실체적 개체성을 완전히 해체하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인지, 혹은 개체와 외부와의 경계만큼은 유지하는 것인지, 나아가 상호작용과 연결성의 강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의 문제를 살펴보고 셋째, 디지털과 생명공학 기반의 신유물론 존재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공각기동대, 해러웨이(D. J. Haraway)의 카밀 이야기, 삼체 등 몇몇 우화적 SF와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뉴럴링크 기술을 참조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넷째, 다양한 차원의 물질 간 교차와 창발로 인해 집합체들의 속성과 행위력을 예측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물질의 능동적 연결성을 무차별적으로 용인하기보다는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할 ‘꿈’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결국 내부조절 체계를 구성하는 개체단위의 힘과 능동성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III. 경계의 해체와 교차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신유물론적 사조가 비선형적이고 우연적으로 교차하는 연결성에 주목하는 공통의 토대를 공유하고 있지만,

행위자간 교차의 정도와 의미에 대한 견해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를 거칠게 구분해본다면, 경계와 체계의 단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는가에 따라 온건한 입장과 래디컬한 입장으로 나뉘볼 수 있다.

표 1에 보인 바와 같이, 생물·무생물 행위자들이 외부와 상호작용하며 교차와 횡단을 통해 새로운 집합체로 전환하지만, 여전히 외부환경과는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며 닫힌 조절체계로서의 개체적 특성을 유지한다는 자기생성체계 개념을 지지하는 입장이 한편에 있고, 다른 한편에는 개체적 단위를 구분하기위한 경계 자체를 완전히 해체한 후 교차와 횡단에 의한 창발적 연결성에만 주목하는 래디컬한 공-산 개념을 지지하는 입장이 있다[10]. 이 두 개념을 비교하며, 디지털시대 인공지능과 인간의 교차 또는 생명공학시대 이질적 요소와 인간의 융합이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지, 이러한 연결성으로 인해 새롭게 드러나는 융합적 집합체는 어떠한 힘과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인지에 살펴보고자 한다.

1. 자기생성(Autopoiesis): 경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외부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준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자기조절체계

신유물론자 일부는 존재자들 간 교차적 연결이 자기생성적으로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자기생성이란 외부와 상호작용하며 창발하면서도 한편으로 자율적 조절을 통해 자기 정체성(항상성)은 유지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마투라나(H. R. Maturana)와 바렐라(F. J. Varela)와 같

표 1. 자기생성체계와 공-산 체계의 비교

Table1. Comparison between autopoiesis and sympoiesis

	자기생성체계 (AUTOPOIETIC SYSTEMS)	공-산 체계 (SYMPOIETIC SYSTEMS)
특성 정의	자가생산 경계가 있음	경계가 없음
	조직적으로 닫혀있음	조직적으로 일부개방되어있음
	외부와 구조적으로 커플링	내-외부 구조적 커플링
특정적 경향성	자율적 단위	복잡하고 무형의 존재
	중앙통제	분산통제
	복제를 통해 재생산	비정형화된 재생산
	시스템간 상호작용을 통한 진화	시스템내부 진화 혼종으로의 전환
	항상성을 유지하는 균형	다이믹한 긴장을 통한 균형
	준안정적 상태	드라마틱한, 놀라운 변화
	유한한 수의 일시적 궤적, 예측가능+예측불가능	일시적이면서도 무한한 궤적이 잠재해있음. 예측불가능
	제한된 정보만을 복제함	새롭고 이중적인 정보에 개방적

은 학자가 생명이나 의식으로 정의하기 위해 이러한 자기생성체계 개념을 활용한 바있다[11]. 이러한 시도는 2차 대전 당시 복잡한 기계에서 보이는 조절시스템에 대해 연구하던 사이버네틱스에서 차용된 것으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개방성과 조절기능을 이러한 사이버네틱스 개념에 교차하여, 생명의 속성을 외부와 상호작용하는 조절체계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정의한 것이다. 이러한 조절체계의 최소단위가 바로 세포라 할 수 있으며, 생명 개체 또는 군집 수준, 나아가 비인간 행위자를 포함한 지구 행성 전체 수준까지 이의 적용을 확대하기도 하였다. 지구행성을 인간·비인간 생물·무생물의 집합적 연결망이자 통합적 조절체계로 정의한 가이아 가설이 등장한 것도 이러한 맥락과 연관된 것이다[12, 13]. 자기생성체계에서 일어나는 교차와 연결의 특성을 좀 더 상세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4].

첫째, 경계와 구획을 갖는 ‘단히계’로 폐쇄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외부의 물질과 에너지가 계속 드나들며 조절 작용을 활발히 이어간다는 점에서는 개방적이기도 하다. 둘째, 자기의 고유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띠며, 외부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계속 변화시키지만 그 정체성은 유지되는 ‘자기준거적’ 특징을 보인다. 셋째, 조절을 위해 스스로를 변형시킨 상태가 그다음의 상태로 재투입되는 되먹임이 반복되는 재귀적 특징을 보인다. 넷째, 자기조절 메커니즘을 통해 준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교차의 형식은 비선형 동역학 메커니즘으로 작동되는 복잡계와 같아 그 결과는 예측불가능하고 창발적이다.

정리하자면, 외부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며 다양한 교차와 연결이 생성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경계를 갖는 자기준거적 닫힌계로서의 정체성은 유지되고, 이러한 가운데 자율적 조절작용을 지속하는 것이 자기생성체계의 핵심적 속성이다.

## 2. 공-산(Sympoiesis)의 행위성

좀 더 래디컬한 신유물론에서는 이질적 혼종을 생성하는 공-산 개념을 제시한다. 해러웨이는 “이(공-산)는 ‘자기규정적 공간이나 시간적 경계 없이 집합적으로 생산하는 시스템들을 지칭한다. 반면에 자율생산적 시스템은 ‘중앙집중적으로 통제되고, 항상성과 예측가능한 경향이 있는 자기규정적 공간 혹은 시간의 경계들이 있는 자기생산적’ 자율단위들이다.” 라고 말하며 시공간

경계 없는 교차와 연결을 강조하고 행위자의 개체성을 철저히 해체함으로써 이러한 교차적 연결을 통한 진화가 더욱 역동적이고, 도저히 예측불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15].

교차와 얽힘의 ‘수행’을 통해 사물의 존재를 설명한 바라드(K. Barad) 또한 래디컬 진영을 대표적 학자 중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물질이란 끊임없이 배치되고 재배치되면서 신체들을 오려내는 실천 행위의 과정이다. 존재론적으로 분리불가능한 얽힘에 의해 드러나는 것이 각각의 ‘현상’이며, 겉으로 보기에 경계를 가진 닫힌계로 보이는 사물조차도 실제로는 교차와 얽힘이 안정적으로 반복되면서 침전된 결과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대상이나 속성들의 경계를 정하는 내부작용은 선형적으로 주어진 구별이 아니라 매 순간 실행되는 행위일 뿐이다[16].

래디컬 공-산의 관점에서는 물질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행위하며 관계적인데, 이러한 수행성이 인간의 신체, 비인간 신체들, 나아가 세계 그 자체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모든 존재는 비결정적이고, 실험 조건의 특정한 배치를 통해 축정이 일어난 뒤에야 관찰의 대상으로 드러나게 된다. 겉으로 보이는 경계의 실상은 선형적으로 주어진 구별이 아니라 교차와 얽힘이 반복되며 준안정적으로 보이게 된 일종의 현상일 뿐이고, 존재자들은 끊임없이 행위하며 동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실상은 오로지 교차적 공-산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 공-산의 기본개념인 것이다. 또한, 공-산에서는 다중 간의 ‘함께-되기’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인간중심의 전통적 윤리 개념까지 넘어서고자 한다[17].

## IV. 디지털, 유전자간 융합적 집합체로서의 공-산 인간

디지털시대 뇌에 칩을 이식한 융합적 집합체는 기계-되기의 일례라 할 수 있으며, 유전자재조합을 통해 동물종의 유전자를 체내에 이식하는 생명공학적 실험은 동물-되기의 혼종적 수행성을 촉발하여 인간의 몸을 재구성하는 강력한 행위요소라 할 수 있다. 인간의 몸은 이러한 인공물을 통해 차차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되어 이질적 집합체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계-되기를 통한 혼종적 교차와 연결성의 문제가

공-산의 관점에서 본격화된 것은 해러웨이 사이보그 선언에서였다[18]. 해러웨이 사이보그 논쟁은 사이버네틱스 체계와 오가니즘(유기체)의 교차를 통해 혼종적 존재가 생성될 수 있다는 상상에서 출발하여, 인간과 기계 사이의 혼종적 하이브리드와 생성이라는 존재의 그물망에서 ‘몸’의 성립조건이 달라지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며, 유기체와 기계 사이의 이분법적 구분을 당연시 하던 서구의 지적 전통에 심각한 균열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기계-되기를 통한 이러한 균열은 현재에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뇌-기계 인터페이스 뉴로테크놀로지 스타트업인 미국의 뉴럴링크가 2024년 1월, 성공적으로 인간 뇌에 칩을 첫 이식한 사건은 바로 이러한 되기의 사례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뇌-기계 인터페이스란 환자가 특정 생각을 떠올릴 때 신경망 변화를 감지하고 이 변화를 특정 신호로 바꿔주는 알고리즘이다. 이 신호가 일종의 명령어로 해석되고 소프트웨어가 이에 감응할 수 있게 되면,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받은 환자가 마우스를 움직이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마우스 조절이 가능하게 된다. 칩을 이식받은 환자에게서, 신경신호에 의한 자극이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당 기업이 밝힌 바 있다. 현재는 생각을 신호로 변경하는 수준에서 실험적으로 개발되고 있지만, 한 차원 더 나아가게 된다면, 생각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식의 의식과 기억을 읽어내고 이를 컴퓨터에 저장해놓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어느 한 곳에 저장해놓았다 불러와 로봇에 이식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인간의 모든 기억을 탑재한 로봇기계와 인간이라는 생물종 사이의 경계는 불분명해진다.

뉴럴링크의 이러한 기술진화 예측은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의 사이보그 융합체들의 출현을 예견하는 것이기도 하다. 공각기동대 주인공인 쿠사나기 소령은 일시적 융합으로 정의되는 실험적 존재라는 사이보그 정체성의 일면을 잘 보여준다. 쿠사나기 소령은 정부로부터 주어진 고난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보그인데, 생성 당시의 계획과 달리 자아의식을 가지게 되고 스스로 이질적 결합을 시도하기에 이른다. 즉, 작중 사이보그들은 새로운 융합체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이질적 존재들 사이의 교차를 통해 융합을 형성하며 그 정체성의 경계를 쉽게 넘나들게 되는 것이다.

공각기동대의 엔딩 장면에서 쿠사나기 소령이 인형사와 융합함을 통해 혼종적 융합체인 제3의 존재로 새롭게 배치된 것은 생물종-기계간의 인터페이스 혼종뿐만 아니라, 사이보그-사이보그 간 인터페이스를 통한 이중의 혼종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SF드라마 <삼체>에 등장하는 외계인과 지구인의 상호작용 또한 공-산이라는 개념을 통해 관계적 존재론을 되짚어볼 수 있는 소재이다. 이들은 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글자가 아닌 텔레파시 신호로 읽어 들이고 자신의 생각 또한 텔레파시 신호로 상대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이러한 소통방식 덕분에 오랜 시간 축적된 문명과 관련한 데이터 전부를 한 개체의 기억에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혹독한 환경에서 절멸의 위협에 놓인다 해도, 한 두 명의 생존자만 있으며 곧바로 데이터 전체를 복원하고 공유하여 짧은 시간 안에 문명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개체의 의식 간 경계가 완전히 해체된 극단적인 공-산의 연결망이라 할 수 있다.

기계-되기의 공-산을 넘어, 동물종과 인간의 유전적 교차 수행을 통해 동물-되기로 혼종적 융합을 실험적으로 시도하는 우화적 스토리텔링도 있다. 멸종되어가는 동물종(왕나비)과 인간들을 유전적으로 결합시켜 생산한 해러웨이의 ‘카밀’이 바로 이러한 존재이다. 카밀은 멸종을 거부하고 생애주기를 확장하기 위해 공간을 가로질러 실험적이고 의도적으로 생산된 아이이다[19]. 이러한 실험적 혼종의 파트너는 왕나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필요할 경우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실험적 교차와 혼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쥐라기 공룡과 교차하여 그 멸종의 기억을 공유하거나, 수억 년 동안 생존에 성공한 유공충과의 교차를 감행하여 그 성공의 스토리를 함께할 수 있다.

## V. 공-산 교차의 난해함

미래에는 생물·무생물 행위자간 교차와 횡단이 빈번해지고, 인간과 기계의 인터페이스가 자유롭게 진행되며, 심지어 인간 뇌의 한계를 뛰어넘는 슈퍼지능이 출현할 가능성도 있어 그들 간 혼종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급속히 증가하겠지만, 그 혼종성은 결국 예측불가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공각기동대>의 ‘인형사’를 보면, 원래의 출생은 여

론조작, 정보수집 정치공작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해킹프로그램이었지만, 창발적 교차를 통해 자신을 더 이상 단순 인공지능이 아니라 스스로를 정보의 바다에서 발생한 ‘생명체’로 인식하는 자아를 가지고 원래의 배치에서 탈주하기에 이른다. 결국 인형사를 회수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인형사는 쿠사나기 소령과 융합을 통해 네트워크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집합체인 소녀로 전환된다. 이때 새로운 혼종으로 생성된 소녀의 미래는 전혀 예측할 수 없고 그를 둘러싼 교차와 연결망이 어떤 식으로 창발될지 또한 알 수 없다.

신기술을 통해 이러한 혼종의 가능성이 현실화된다면, 이들 공동체에는 전통의 규범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고 새로운 윤리가 자리 잡게 된다. 이를테면, <공각기동대> 인형사의 경우 전통 규범에서는 사이버네틱 임플란트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며 사회질서를 교란시키는 악의적 존재로 규정되지만, 미래사회에서는 쿠사나기와 혼종적 교차를 감행하는 이질적 요소 중 하나에 그칠 뿐이어서, 이에 선악의 가치규범을 적용하는 것은 무의미하게 된다[20]. 나아가 인류종이 자신의 절멸 가능성을 인식할 만큼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게 되더라도, 전통적 가치나 규범으로 돌아가 고유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자연을 복원시키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생활방식이나 사고방식, 나아가 상호 간 감정을 교류하는 방식을 바꾸기만 할 뿐이다[21].

한편, 이 공동체를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이분법으로 구획짓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교차적 혼종들 사이의 관계는 늘 실험적으로 이합집산할 뿐이어서 때로는 유토피아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디스토피아적이기도 하다. <공각기동대> 속 쿠사나기 소령의 혼종적 교차는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편적 공동체 윤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고 그때마다 대안적인 혼종적 교차를 반복하여 시도할 뿐인 것이다.

혼종적 교차의 이러한 난해함은 <삼체>드라마 주인공 공이 지구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계행성으로 추수를 뺏는 동사적 수행에도 배태되어있다. 주인공인 과학자 ‘예원제’는 환경파괴, 정치혼란, 거짓위선 등이 만연한 인간 문명에 대한 절망을 느껴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고자, 과학기술이 훨씬 앞선 4광년 떨어진 곳의 외계인과 교신을 시도하고, 결국 혼종적 연결이 형성되기에 이르렀지만, 이는 파괴적인 디스토피아를 결

과할 뿐이었다. 이 외계인들은 얽힘 현상을 이용한 통신기술을 통해 자신들이 지구에 도착했을 때, 자신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구의 뛰어난 과학자들을 극도의 공포상황으로 몰아넣어 미리 제거해나갔고, 최종적으로는 자신들의 거주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구인공동체를 파괴하고자 할 뿐 지구인과 외계인 사이에 공생적 교차를 찾아볼 여지는 없었다.

## VI. 조절체계 유지를 위한 닫힌계로의 귀환

삼체인과 지구인의 혼종적 융합체에서 야기된 난해함은 우리 인류로 하여금 닫힌계 내부의 자기생성적 연결을 탐색하는데 관심을 가지도록 일깨운다. 외계인의 파괴적 공격에 맞서 지구인은 결국 몇몇 ‘면벽자’(the wallfacer)라는 특출난 개체를 선발하여 체계를 유지할 방법을 탐색한다. ‘면벽자’란 탁월한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절대 외부로 드러내지 않고 머릿속 사고만으로 지구의 멸망을 막아낼 계획을 세우는 뛰어난 존재자들이며, 말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삼체인을 파괴할 명령을 내리는 임무를 지게 된다.

삼체인들은 모든 지구인의 말과 행동을 표현되는 모든 정보를 즉시 알아내 이를 지구침공과 지구인 파괴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면벽자들은 외부로 드러나는 표현 없이 생각만으로 삼체인을 물리칠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면벽자가 지구를 구할 계획을 문자나 말의 형태로 드러내는 즉시 삼체인이 이를 포착하여 파괴적 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삼체인은 텔레파시 신호만을 통해 소통하며 상대방의 생각을 읽어 들이기 때문에 지구인의 거짓말, 지략, 음모 등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

지구인과 외계인 사이에 이러한 차이와 이질적 혼종으로부터 예상되는 파괴적 교차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지구인이 선택한 것은 자신의 경계를 확인하고 닫힌 조절체계 내부로 귀환하려는 시도였다. 교차와 혼종의 실패를 통해 각각의 존재와 경계를 인식하며 생존 방법을 시험적으로 모색하고 있지만, 그 방법은 혼종적 연결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체계의 경계를 다지고 내부 생성 체계를 새롭게 형성할 방법을 궁리하는 것으로 수렴되었다.

두 존재자 간의 관계는 상호파괴적 공멸이나 일방적 침공의 형태가 아니라 서로를 침공하지 못하게 되는 평

형상상태를 위해 각자의 경계를 유지하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공-산의 혼종적 연결보다 단연계 내에서 자율적 조절체계를 유지하려는 자기생성적 창발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라할 수 있다.

한편, 외부와 일체 소통하지 않는 면벽자는 집합체이 기보다는 단일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진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기생성체계 내에서는 개체들이 맺는 관계가 수평적이지도 않다. 지구를 구할 임무를 수행하는 단일한 개체로서의 면벽자가 가지는 영향력은 다른 개체에 비해 더 클 수밖에 없다. 모든 개체들이 날마다 작은 변화를 겪지만, 면벽자와 같은 한정된 개체들로부터 생성되는 중요한 변화의 횟수는 얼마 되지 않으며, 면벽자와 같은 뛰어난 개체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생태적 연결망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실제(객체, 개체)가 관계적 연결에 의해 침전된 현상보다 앞선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유물론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이질적 존재자간 공-산은 생각처럼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22]. 카밀의 이야기는 유전공학에 대한 혼종적 교차가능성에 대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유전자 이식을 통한 혼종의 생성은 그다지 녹록하지 않다. 원하는 유전자를 삽입하여 원하는 표현형을 만들어내는 유전자 적중기술이 목적인 표현형을 생성해내려면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기능에 대해 완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람의 유전체 중 단백질 표현형을 발현하는데 직접 관여하는 염기서열은 전체 유전체의 1.5%미만일 뿐이며 나머지 95%이상의 유전체 또한 유전학적 조절과정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조절과정이 매우 복잡하여 제대로 밝히기 어렵고, 이는 결과적으로 유전자 적중을 통한 혼종의 생성이 당초 계획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23].

또한, 아래의 <객체성에 주목하는 공리>에서와 같이 공-산은 개체의 생애에서 비교적 일찍 발생할 뿐이고, 일단 개체의 특질이 확립되고 나면 무한정 유연한 것도 아니다[24]. 자기준거적 조절체계를 탐색하는 경우 개체성이 갖는 이러한 특징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객체(개체성)에 주목하는 공리

- 모든 것은 연속적인 구배를 따라 발생하기보다는 오히려 특정한 경계와 단절지점에 의해 분할된다
- 사물은 다양체라기보다 단일체다
- 모든 것이 유연적이지는 않다
- 모든 것은 일시적일지라도 자율적인 본질을 갖추고 있다.
- 실제·명사가 행위·동사에 우선한다.
- 사회적 개체를 이해하려면 그것을 둘러싼 공생을 살펴봐야 함. 공생은 개체의 생애에서 비교적 일찍 발생. 객체의 특질이 일단 확립되고 나면 무한정 유연하지 않음.

## VII. 결 론

우리는 신유물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공각기동대의 쿠사나기소령, 해러웨이의 카밀, 뉴럴링크의 칩이식기술, 삼체인과 지구인의 상호작용을 자기생성체계와 공-산이라는 개념에 근거하여 살펴보았으며, 먼저 경계와 개체성을 해체하는 쿠사나기와 카밀의 혼종성은 기술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공-산의 생성이 예측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음에도 래디컬한 신유물론자들이 그 혼종성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였다. 나아가 집합적 연결이 반복되며 하나의 개체로 침잠한 것으로 드러날 뿐 개체는 실재하지 않는다는 공-산의 입장에 반대하여, 이들 주장과 달리 현상에 앞선 개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과 존재들 간에 위계가 사라지지 않아 완전히 수평적이지 않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디지털 문명에서 자율성을 상실한 체 외계인과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공-산을 추구하려 하지만, 이러한 공-산 연결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 것인지 알기 어렵고, 나아가 이러한 시도가 언젠가 공멸의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다는 점이 비교적 분명해 보임에도, 단지 모든 존재자에 수평적인 행위력을 부여한 후 이들 간의 교차를 통해 혼종적 연결이 반복된다는 기술적(descriptive) 설명에만 치우친다면 제대로 된 실천적 비전을 제공하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외계인이나 사이보그와의 혼종적 교차에 파괴적 연결의 가능성이 배태되어있다면, 우리는 단지 미래에 도래할 디스토피아적 상황을 예견하며 이에 맞춰진 윤리와 규범을 구성하는 것에 그치지보다는, 그 파괴적 상호작용을 상상하는 것으로부터 인류종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일정한 경계극기와 공생적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자기조절을 위한 대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물질성의 힘과 영향력을 강조하는 신유물론의 기본토대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교차적 횡단을 통해 점점 더 다양한 집합체가 생성되는 역동적 과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넘어, 생물종간 연결과 공생적 상호작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자기생성 기제를 탐색하는 등 자기준거 정립을 위한 노력을 동시에 기울인다면, 이상에서 설명한 신유물론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유의미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 Referecne

- [1] T. Nail, *Theory of the Object*, translated by Kim Hyojin, Galmuri Publishing House, pp.24-25, 2024.
- [2] G. M. Mun, *Geld tut Frauen richtig gut*, Secondthesis Publishing House, pp.93-95, 2022.
- [3] G. M. Mun, *Geld tut Frauen richtig gut*, Secondthesis Publishing House, pp.23-25, 2022.
- [4] S. J. Yoon, "Body as a Process of 'Becoming' : On the Basis of Deleuze's and Braidotti's Becoming Theory", *Study of Ceramic Art*, 29, pp.153-168, 2020.
- [5] R. Braidotti, *The Posthuman*, translated by Lee Gyeongran, Acanet, pp.78-84, 2015.
- [6] Y. M. Choi, *Donna Haraway, Thinking of Sympoiesis*, Publishing House b. pp.67-110, 2020.
- [7] G. Deleuze and F. Guattari, *A Thousand Plateaus*, translated by Kim Jaemin, saemulgyul Publishing House, p.115, 2003.
- [8] H. Y. Song, "A Study on the Expressions of Rhizomatic Escape by Deleuze and Guattari ; Song Hayoung With a Focus on Paintings and Object Work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7(4), p.327, 2021.
- [9] G. Harman, *Immaterialism : Objects and Social Theory*, translated by Kim Hyojin, Galmuri Publishing House, pp.42-84, 2020.
- [10] B. Dempster, *Sympoietic and Autopoietic Systems : A New Distinction for Self-organizing Systems*, p.7, 2000, <https://api.semanticscholar.org/CorpusID:26810205>
- [11] H. R. Maturana and F. J. Varela, *Der Baum der Erkenntnis*, translated by Choi H. Y., Galmuri Publishing House, pp.43-64, 2007.
- [12] J. E. Lovelock, *Gaia: A New Look at Life on Earth*, Translated by Hong Ukhui, Galapagos Publishing House, pp.211-262, 2004.
- [13] L. Margulis, *Symbiotic Planet : A New Look at Evolution*, translated by Lee Haneum, Sciencebooks, pp.199-227, 2007.
- [14] H. K. Shon, *Lynn Margulis*(e-book), Commbooks, Ch.3, 2023.
- [15] D. J. Haraway, *Staying with the Trouble : Making Kin in the Chthulucene*, translated by Choi Yumi, Manongji books, p.111, 2021.
- [16] S. H. Park, *Karen Barad*(e-book), Commbooks, Ch.1, 2023.
- [17] Y. M. Choi *Donna Haraway, Thinking of Sympoiesis*, Publishing House b, pp.67-110, 2020.
- [18] D. J. Haraway, *Manifestly Haraway*, translated by Hwang Huseon, Chaeksesang Publishing House, pp.17-86, 2019.
- [19] D. J. Haraway, *Staying with the Trouble : making kin in the Chthulucene*, translated by Choi Yumi, Manongji books, pp.181-232, 2021.
- [20] E-H. Kwak, "A Project towards Heteroglossia: Representation of the Female Cyborg in <Ghost in the Shell> and the Future of the Posthuman", *Journal of Asian Women*, Vol.60 No.2, pp.19-29, 2021.
- [21] D. J. Haraway. *Staying with the Trouble : Making Kin in the Chthulucene*, translated by Choi Y. M., Manongji books, pp. 187-196, 2021.
- [22] G. Harman, *Immaterialism : Objects and Social Theory*, translated by Kim Hyojin, Galmuri, p.27, 2020.
- [23] ENCODE Project Consortium, "An Integrated Encyclopedia of DNA Elements in the Human Genome", *Nature* 489(7414), pp.57-74, 2012.
- [24] G. Harman, *Immaterialism : Objects and Social Theory*, translated by Kim Hyojin, Galmuri, pp.180-189, 2020.

※ 본 논문은 동국대학교 다르마교양교육연구소 제9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다.